

# 주식시장도 폭염 엄습... 거래량 20% '뚝'

7월 광주·전남 주식 동향... 무더위에 냉방기 관련주 ↑  
선봉기 제조 신일산업 40% 올라... 경협주 관심도 여전

기록적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광주·전남 주식 시장에서도 폭염 관련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 경제협력(경협) 관련 업체 등에 대한 관심도 여전했다.  
8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내놓은 '7월 광주·전남 주식거래'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역 투자자들은 지난달 여름마다 주가가 오르는 경향을 보이던 '무더위 수해주'에 관심을 보였다.  
대표적 폭염 관련주로 꼽히는 신일산업의 경우 지난달 1618만주가 거래되며 광

주·전남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종목으로 꼽혔다. 신일산업 주가는 지난달 2일 1379원(이하 종가 기준)에서 18일 1950원까지 올랐다. 신일산업은 국내 선봉기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절대 강자다.  
코스피 시장에서 올 들어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꼽혔던 필룩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이어지면서 거래량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경협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도 여전했다. 강관 생산기업인 동양철관의 경우 남

북은 물론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 테마주로 얽히며 지난 4월부터 광주·전남 유가증권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는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에는 1012만주가 거래되며 4위에 올랐다.  
다른 경협주인 평화산업은 536만주가 거래되며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량 9위에 올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아이아가 지난달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으로 꼽혔다. 대아이아는 철도신호제어시스템 사업분야의 기업으로 지난달 1619만주가 거래되는 등 매일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대아이아는 거래대금 순으로도 지난달 2위에 올랐다.  
대북 송전업체로 경협주로 꼽히는 이화

전기도 3월 3603만주, 4월 6818만주, 5월 5696만주, 7월 763만주가 거래되는 등 지역 투자자들 사이에서 코스닥시장 인기 거래종목이다.  
한편,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불안감,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발동, 바이오주의 회계 감리 이슈 등으로 광주·전남 주식시장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모두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지난달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주식 거래량은 3억 8042만주로, 전달(4억7483만주)에 견줘 9441만주(19.88%) 감소했고 거래대금은 3조6908억원에서 2조8419억원으로 8489억원(23.00%) 줄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00.16 (+13.66)	↓ 금리(국고채 3년) 2.08 (-0.02)
↑ 코스닥 784.70 (+3.29)	↓ 환율(USD) 1123.80 (-0.20)

## BMW 사태에 '징벌적 손해' 도입 검토

자료 요구 거부 등 리콜제 한계... 제조사 배상 책임 강화

정부가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적극

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검토되는 것은 BMW가 리콜을 결정하기 전까지 정부의 자료 제공 요구를 거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등 리콜 제도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성능시험대행자가 자동차 화재 등 사고 현장에서 제작 결함을 직접 조사하고 사고 차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자동차 회사에 대해 리콜과 관련한 자료 제출 기준을 강화하고, 부실자료를 제출할 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 "한국, 올 경제 성장 2.8% 전망"

KDI 경제동향... 4분기 금리인상 가능성

국내 경제전문가 20명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전망률을 2.8%로 전망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밝혔다.  
이날 KDI 경제동향 8월호에 실린 전문가 경제전망 설문조사를 보면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올해 2.8% 성장한 뒤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4월 설문조사 때(2.9%)보다 0.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수출 증가율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세계 교역량 증가세 둔화로 올해와 내년 모두 5~6%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 개선 추세가 완만해지면서 실질물가는 3%대 후반으로 오르고 취업자 수 증가 폭도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은 14만2천명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하반기 2만7천명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 '투싼' 변경모델 출시

럭셔리 외관·주행성능 강화

현대차의 준중형 SUV인 '투싼'의 부분 변경모델(페이스리프트)이 출시됐다. 스포티한 외관 디자인에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 다이내믹한 주행성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외관의 경우 헤드램프 디자인과 현대차의 패밀리룩인 '캐스캐이딩(폭포형) 그릴'의 형태를 다듬는 식으로 변화를 줬다. 실내는 스티어링 휠과 변속기 노브 등 주요 부위에 가죽을 적용하고 8인치 내비게이션을 장착했다.  
중전의 가솔린 1.7 터보는 1.6 터보로 바뀌었고 새롭게 다듬은 다윈 엔진인 스마트스트림 D 1.6을 도입하는 등 ▲디젤 2.0 ▲스마트스트림 D 1.6 ▲가솔린 1.6 터보 등 모두 3가지 파워트레인 라인업을 갖췄다.  
특히 스마트스트림 D 1.6은 연비 향상, 실용성 강화, 배출가스 저감 등이 장점이라는 게 현대차 설명이다.  
알루미늄 소재를 적용한 경량화와 제원 최적화, 다양한 연비 신기술 활용으로 16.3km/l(복합연비, 2WD AT, 17인치 타이어 기준)의 동급 최고수준 연비를 달성했다.  
또 6단 변속기를 물렸던 디젤 2.0 모델은 전륜 8단 자동변속기로 바뀌 변속이 더 부드러워지고, 저단 영역에서는 발전·가속 성능을, 고단 영역에서는 연비·정속성을 향상했다고 한다.  
가격은 ▲디젤 2.0이 2430만~2847만원 ▲스마트스트림 D 1.6이 2381만~2798만원 ▲1.6 가솔린 터보가 2351만~2646만원 ▲엘리트 에디션이 2783만~2965만원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여름밤 와인 한잔 어때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하1층 주류매장에서 과일, 과즙, 소다수를 섞어 만든 와인으로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위해 시원하게 마시는 상그리아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속 해당제품은 스페인산 '엘 차링귀토 상그리아'로 가격은 1만2000원이다. (롯데쇼핑 제공)

## 한전, 누진제 완화 2761억원 부담

3분기 실적 악화 우려... 정부, 지원방안 고려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 완화로 한국전력의 전력판매 수입이 줄어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한전이 감소액을 흡수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난 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낸 한전의 실적에 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단계의 상한선을 각 100kWh(킬로와트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적용하면 전기요금 인하총액이 총 2761억원으로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

담이 감소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기요금 인하는 한전의 수입 감소를 의미한다.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이상 2761억원은 고스란히 한전 부담이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이지만, 한전이 전기요금 인하를 부담할 여력이 크지 않다.  
한전은 연결기준으로 작년 4분기 1294억원에 이어 올해 1분기에 1276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정비 때문에 일부 원전 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면서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

(LNG)발전 구매량이 늘었고, LNG와 유연탄 등 연료비가 상승한 게 원인이었다.  
한전은 올해 2분기 원전 가동률이 회복되면서 실적 개선을 기대했지만, 누진제 완화가 3분기에 반영되면 다시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폭염이 지난 수준이며 최근 한전의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부 예비비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2015, 2016년에도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인하였고, 당시 인하총액은 2015년 1300억원, 2016년 4200억원이었다.  
그때는 한전이 인하액을 전부 부담했다. 당시 한전은 연결기준으로 2015년 11조 원, 2016년 12조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기록해 여력이 충분한 상태였다. /연합뉴스

## 사회적 기업 상표출원 10년만에 3배

인증업체 1978곳... 중·도소매업 349건 1위

고용불안·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들 기업의 상표출원도 크게 늘었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시행 후 이들 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는 인증 초기인 2007년 125건에서 지난해 376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인증제도 시행 후 지난 6월까지 사회적기업의 상표출원 건수는 모두 2889건이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100건 남짓이었지만,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는 해마다 300건 이상 꾸준히 출원됐다. 전체 출원 건수(2889건) 중 도소매업 349건(12.08%), 교육·지도·문화활동업 258건(8.93%), 음료·과자 251건(8.69%), 식품류 202건(6.99%), 화장품 166건(5.75%), 식음료서비스업 146건(5.05%) 등 주요 10개 상품(업종)이 전체의 63.5%를 차지했다.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도 시행된 2007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업체는 모두 1978곳으로, 이 중 상표출원 실적이 있는 업체는 87%인 1721곳이었다. /연합뉴스

Approved Partner  
Heating Instrument  
**SIEMENS**

##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대: 430-8801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